

공격성 지각에 대한 대인관계적 분석: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을 중심으로

정태연¹⁾ 김은정 김인경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본 연구는 SRM(Kenny & La Voie, 1984)에 근거하여 공격성 지각에서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 보고, 이러한 지각적 측면이 공격성 수준에 따른 하위집단(가해, 피해, 가해/피해 및 비교)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대인관계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중학생 407명(남녀비공학남: 116명과 여: 108명, 남녀공학 남: 101명, 여: 82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학급별로 5-6명으로 구성된 총 74집단으로 분할된 참가자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각 구성원들을 6개의 공격성 차원에서 평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대인관계성향척도에서 자기보고를 했으며, 학급내에서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을 거명하였다. 결과, 공격성 지각에 있어서 지각자, 지각대상자 및 관계 효과가 있었다. 또한, 미약한 상호성과 초지각의 정확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정된 상호성, 가정된 유사성 및 자아-동료간 일치가 있었다. 이 중 몇몇 지각적 측면 및 대인 관계 성향에서도 공격성 수준에 따른 하위집단들간에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각적인 특성들이 대인관계 성향과 약 .30 정도의 중다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아동의 공격성 지각과 평가 및 적응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의 학교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장면에서의 공격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발달 및 상담 심리학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80년대 이후 상당 수의 연구들이 정보처리적 접근에 근거하여 공격적인 아동의

인지·지각적 특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예로, 윤리라, 1999; 윤진과 박금주, 1991; Dodge, 1980, 1986). 또한,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에 관한 연구들은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특성들을 밝히고자 했다(예로, Olweus, 1993).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우리가 공격행동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1) tjung@mail.yonsei.ac.kr

데 큰 도움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몇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먼저, 정보처리적 입장에 근거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상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공격적인 아동의 인지·지각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에서의 지각이란 일방적이어서 상대방에 대한 나의 지각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나와 상대방이 모두 지각자이면서 동시에 지각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지각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추측이 내가 그 상대방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lloy & Albright, 1990). 또한,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의 전반적인 특성을 밝힌 연구들은 대인관계적인 측면, 특히 둘 간의 관계(dyadic relationship)적인 측면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공격적인 아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며, 비공격적인 아동도 특정 상대방에게는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들을 극복하면서 공격성 지각과 관련된 여러 측면들을 탐색하고자 했다. 즉, 참가자로 하여금 자신 뿐만 아니라 가상적인 인물이 아닌 실제 동료를 공격성 차원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격성 지각에 있어서 두 사람간의 관계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였다.

공격성 지각에서의 여러 특성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대인지각을 타인지각(other-perception), 초지각(meta-perception), 그리고 자기지각(self-percep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Kenny, 1994). 타인지각은 내가 남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이며, 초지각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나의 판단이고, 자기지각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3가지 지각 유형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히 Big Five의 특질 형용사로 측정된 전반적인 인상형성을 취급한 반면, 공격성이라는 제한적인 영역을 구체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먼저 특질형용사차원에서 여러 대인지각적 측면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이러한 결과가 공격성 지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색해 보겠다.

지각자 효과, 지각대상자 효과, 관계 효과: 사회적 관계모형(The Social Relations Model: SRM; Kenny & La Voie, 1984)에 따르면, 타인지각은 지각자 효과(perceiver effect), 지각대상자 효과(target effect), 그리고 지각자와 지각대상자 간의 관계 효과(relationship effect)의 산물이다.² 지각자 효과는 특정 지각자가 다수의 지각대상자를 서로 비슷하게 지각하는 정도이다. 예를 들어, 지각자 A는 타인들을 전반적으로 “공격적”이라고 지각하는 반면, 지각자 B는 타인들을 전반적으로 “비공격적”이라고 지각할 때 때 지각자 효과가 있다. 전반적으로 친숙한 타인을 지각하는데 미치는 지각자 효과는 20% 정도이다(Albright, Kenny & Malloy, 1988; Jung, 1998; Kenny, 1994; Kenny, Horner, Kashy & Chu, 1992; Malloy & Albright, 1990).

지각대상자 효과는 지각자 A가 지각대상자 B를 공격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B의 실제 공격성 때문일 경우, 지각대상자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즉, 지각자들이 평균적으로 지각대상자 B를 C보다 더 공격적이라고 볼 때 지각대상자 효과가 나

2) 타인지각과 마찬가지로, 초지각도 이 세 가지 효과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초지각에서 지각자 효과는 다수의 다른 사람들이 A를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A의 지각이다. 지각대상자 효과는 A가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타인들의 지각이다. 관계 효과는 B가 A를 얼마나 독특하게 보는지에 대한 A의 지각이다. 사회적 관계 모형에 따른 이러한 분석은 매우 복잡하여 본 연구는 주로 타인지각에 대한 기술에 국한할 것이다. 더 관심이 있는 독자는 인용한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타난다. 지각대상자 효과는 동료-동료간 일치 (consensus or peer-peer agreement), 즉 다수의 지각자가 제 3의 지각대상자를 평가할 때 지각자들간에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친숙한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서 지각대상자 효과는 전반적으로 20% 정도이다(Kenny, 1994; Kenny, Albright, Malloy & Kashy, 1994).

관계 효과는 (다른 지각자들과 달리) 특정 지각자만이 (다른 지각대상자들과는 달리) 특정 지각대상자만을 특별하게 지각할 때 가령, 지각자 A만이 지각대상자 B만을 특별히 더 좋아할 때 관계 효과가 나타난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Kenny, 1994; Kenny & Kashy, 1994; Kenny & Malloy, 1988; Montgomery, 1984; Park & Judd, 1989; Swan, 1984), 지각자와 지각대상자간의 친숙성 정도에 상관없이 관계 효과는 대인지각에 있어서 약 15%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

요약하면, 경험적인 연구들은 대인지각이 측정상의 오류 45%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각각 20%씩의 지각자 효과와 지각대상자 효과, 그리고 15%의 관계 효과에 의한 산물임을 지적해 준다. 공격성 역시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에서 중요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공격성 지각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3가지 효과가 모두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SRM에 근거한 여타의 대인지각적 측면들: SRM은 앞서 살펴본 대인지각에서의 3가지 효과 이외에도 타인지각, 초지각 및 자기지각과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상호성 (reciprocity)은 둘이 서로를 비슷하게 지각하는 정도이다. A가 B를 보는 방식대로 B도 A를 볼 것이라고 A가 생각할 때 가정된 상호성 (assumed reciprocity)이 존재한다. 특질차원과 관련된 인상형성에서 상호성과 가정된 상호성은 거의 없다 (Dabbs & Ruback, 1987; Kashy, 1988; Hallmark & Kenny, 1989; Kenny & Bernstein, 1982; Park

& Flink, 1989; Oliver, 1988; Reno & Kenny, 1992). 그러나, 공격성에서는 어느 정도 상호성이나 가정된 상호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한 쪽이 공격적이면 다른 쪽은 피공격적인 상보적인 (complementary)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한 쪽의 공격행동이 다른 쪽의 공격행동을 유발하는 상호적인 (reciprocal) 관계도 가능하다.

초지각의 정확성 (meta-accuracy)은 나의 초지각(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나의 판단)이 상대방의 나의 대한 실제 지각과 일치하는 정도이다. 특질평가의 경우 초지각의 정확성은 거의 없었다(Kenny, 1994; Kenny & Depaulo, 1993). 즉, 사람들은 타인의 마음을 거의 틀리게 읽는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서 보면, 공격성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도 정확한 초지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정된 유사성 (assumed similarity)은 내가 나를 보는 방식대로 남을 보는 정도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특질차원에서 $r = .40$ 정도의 가정된 유사성이 존재했다(Kenny et al., 1992; Malloy, 1987; Malloy & Albright, 1990). 그러나, 공격적인 사람들의 자기고양육구 때문에 자신을 공격적이라고 지각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자신의 공격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타인을 공격적이라고 지각할 가능성은 높다. 한편, 피해자들은 자신을 공격적이라고 지각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타인들을 공격적이라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정된 유사성은 약할 수 있다.

자아-동료간 일치 (self-other or self-peer agreement)은 나와 남이 나를 비슷하게 보는 정도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특질차원에서 $r = .45$ 정도의 자아-동료간 일치를 보고하고 있다(Funder, 1980; Funder & Colvin, 1988; John & Robins, 1993; Kenny et al., 1992; Malloy & Albright, 1990; McCrae & Costa, 1989). 이는 공격성 지각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아-동료간 일치가 있을 수 있음을 함축해 준다. 그러나, 공격성은 사회적

바람직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고양편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John & Robins, 1993). 이러한 편향이 결과적으로 자아-동료간 일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

공격성 지각에서의 개인차

공격성 지각에 있어서의 “SRM에 근거한 여러 측면들”³에서 공격성에 따른 하위집단들, 가령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그리고 이 세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비교집단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하위집단들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행동이나 성향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차이점들을 살펴해보겠다.

먼저, 공격성 수준에 따른 하위집단들간에 타인을 보는 전반적인 시각이 다를 수 있다. 공격적인 아동은 사회적 상황을 해석할 때 공격적인 도식에 더 의존하여 적은 수의 사회적 단서를 이용한다(Dodge & Tomlin, 1987). 또한, 이들은 또래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성이 있다(곽금주와 김하연, 1991, 윤진과 곽금주, 1991; Bickett, Milich & Brown, 1996; Dodge & Coie, 1987; Dodge, Price, Barchorowski & Newman, 1990). 이러한 특성은 공격적 아동이 타인을 더 공격적이라고 지각할 수 있음을 함축해 준다. 또한, 공격행동의 피해자들도 타인들을 공격적이라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가해나 피해아동 모두 정상아동에 비해 타인을 더 공격적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동료-동료간 일치는 특질차원에서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더 높았다(Jung,

1998). 즉, 지각자들의 눈에 극단적으로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으로 보인 사람들은 지각자들간에 매우 비슷했다. 이러한 현상은 타인의 공격성을 지각할 때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즉, 매우 공격적이거나 매우 비공격적인 사람들은 여러 시간이나 상황에 걸쳐 일관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지각대상자의 행동이 일관적일 때, 유사한 행동이 여러 지각자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지각자간의 일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Kenny, 1991). 그러나, 공격성 수준에 따른 하위집단과 관련해서는 어느 집단이 극단적인 위치에 놓이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가해아동은 공격성이 가장 높을 수 있지만, 피해아동이 정상아동과 같은 수준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가해/피해 아동의 공격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질차원에서의 인상형성과는 달리 공격성 지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두 사람간에 상호성이나 가정된 상호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피해 아동들은 다른 아동에 비해 상호성이나 가정된 상호성이 낮을 수 있다. 피해자들은 남들도 자신을 피해자로 볼 것이라고 가정하기 쉽고 실제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들은 타인들을 공격적이라고 지각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피해아동의 경우 두 사람간의 상보적인 지각적 특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그러나, 피해집단 이외의 집단들이 이 측면과 관련해서 보일 수 있는 지각적 특성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

공격적인 아동은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는데 적은 단서에 근거한 도식적 판단에 의존하며(Dodge & Tomlin, 1987), 또래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귀인한다(Dodge et al., 1990; Dodge & Somberg, 1987). 이는 공격적인 아동이 또래의 행동의도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초지각이 정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초지각의 부정확성은 피해아동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사회적

3. “SRM에 근거한 여러 (대인지각적) 측면들”이라는 용어는 SRM과 관련 여러 대인지각 현상들(지각자 효과, 지각대상자 효과, 관계 효과, 두 사람간의 상호성과 가정된 상호성 및 초지각의 정확성, 가정된 유사성과 자아-동료간 일치)을 총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 자료분석방식과 결과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독자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기에 이 용어의 의미를 밝혀 둔다.

상황에서 동료와의 효율적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사회·인지적 정보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Dodge & Feldman, 1990). 이러한 정보처리에는 자신 및 타인의 정서나 생각을 나타내는 내적 단서(자신과 타인의 감정, 의도, 욕구, 기대, 등등)를 적절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해아동 역시 상황 및 타인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부적응적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공격성 수준에 따라 아동의 대인관계성향에서도 차이가 있다. 가해아동은 충동적이고 권력동기가 강하며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없다(Olweus, 1978). 또한 이들은 자신을 추종하는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사회적 인기와 지지를 얻음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Olweus, 1978; Pulkinen & Tremblay, 1992). 한국표본에 근거한 한 연구(김인규, 1996)에서도 가해아동은 으스스대고 자기중심적이며 독선적인 사고와 판단을 한다. 반면, 피해아동들은 소심하고 예민하며 수동적이고(Olweus, 1993), 불안과 우울,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하고, 자기주장 기술이 부족하며 복종적이다(Schwartz, Dodge & Coie, 1993). 이들은 사회적 유능성이 부족하며 우정관계를 유지하거나 협동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고(Egan & Perry, 1998), 사회적으로도 철회된 행동을 보인다(Haselager & Van Lieshout, 1992; Olweus, 1980). 가해 및 피해아동의 이러한 특성들은 여러 상황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인관계 맥락 속에서의 공격성에 대한 지각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공격성에 대한 지각이 개인의 전반적인 행동성향이나 대인관계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문제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에 근거해서 본 연

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다. 즉, 공격성 지각에 있어서 지각자 효과와 지각대상자 효과, 그리고 관계 효과가 모두 존재할 것이다(가설 1). 공격성 지각에 있어서 상호성과 가정된 상호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초지각의 정확성은 거의 없거나 매우 미약할 것이며, 가정된 유사성과 자아-동료간 일치도 기존연구에 비해 약하지만 존재할 것이다(가설 2). 공격성 수준에 따른 하위집단들간에 몇몇 지각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가설 3). 예를 들면, 가해나 피해아동은 타인을 전반적으로 더 공격적이라고 지각할 것이다. 공격성 차원에서 극단적인 아동을 지각할 때 동료-동료간 일치가 높을 것이다. 상호성이나 가정된 상호성의 경우 피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낮고, 초지각 정확성은 비교집단보다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에서 더 낮을 것이다. 마지막 가설로서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지각적 특성이 그들의 대인관계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가설 4).

방 법

연구대상자

서울시내에 위치한 5개 중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1학년 407명이 본 연구에 참가하였다. 즉, 남녀비공학 1개의 남자 중학교에서 3개의 학급 116명과 1개의 여자 중학교에서 3개의 학급 108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남녀공학인 3개의 중학교에서 총 6개 학급에 소속된 남학생 101명과 여학생 82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본 연구에 참가한 사례로 1인당 1,000원 상당의 학용품을 제공하였으며, 설문지를 실시해 준 담임교사에게는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제공하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유형의 측정도구가

포함된 설문지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측정도구는 자신과 타인의 공격성에 대한 평가, 공격성에서의 가해와 피해 학생에 대한 동료 거명, 그리고 자신의 대인관계 성향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들이다.

자신과 타인의 공격성 평가: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공격성을 평정하기 위해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모두 평정하는 라운드-라빈 설계(round-robin design: Warner, Kenny & Stoto, 1979)를 사용하였다. 먼저 각 학급의 학생들을 무선적으로 동성의 5-6명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분할하였다. 그 결과, 남녀비공학의 남학생 21집단과 여학생 18집단, 그리고 남녀공학의 남학생 19집단과 여학생 16집단이 구성되었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은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각 구성원을 6개의 공격성 차원에 대해서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은, 5점: 매우 그러한)척도로 평정하였다. 또한, 초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A로 하여금 다른 구성원 각각이 자신(A)을 각 공격성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6개의 공격성 차원은 능동적 공격을 측정하기 위한 3개의 차원(신체적 폭력과 위협, 반항과 규율위반 및 고함지르기와 욕설하기)과 수동적 공격을 측정하기 위한 3개의 차원(즉 질투와 빼치기, 비방과 헛소문내기 및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은 집단 괴롭힘 행동 척도(Bullying-Behavior Scale, Neary & Joseph, 1994), 집단 괴롭힘 척도(Peer-Victimization, Callahann & Joseph, 1995), Buss(1961)의 공격성 하위분류체계, 그리고 아동용 행동조사표(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Achenbach, 1991)에서의 공격행동 성향을 측정하는 문항의 내용을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공격성에 관한 가해와 피해 학생에 대한 동료 거명: 본 연구는 동료거명을 이용하여 각 학급

내에서 발행하는 공격성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확인하였다. 가해학생을 찾기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학급내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친구,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친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욕하는 친구를 각 차원에서 최대 6명까지 거명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학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맞는 친구,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빼앗기거나 도난당하는 친구,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욕을 듣는 친구를 각 차원에서 최대 6명까지 거명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각 참가자가 가해관련 3개의 차원에서 거명된 총횟수와 피해관련 3개의 차원에서 거명된 총횟수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가해나 피해에서 2번 이상 거명된 학생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참가자들을 가해, 피해, 가해/피해 및 비교(가해 및 피해 성향이 없는 학생)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평가: 참가자들의 대인관계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안범희(1985)가 제작한 검사를 이용하였다. 이 검사는 역할성향, 사회관계성향, 표현성향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2-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별로 1개의 하위영역(2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지배성과 우월성, 사교성과 우호성, 그리고 과시성과 도취성 등 총 6개의 차원을 사용하였다. 평가는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은, 4: 매우 그러한)상에서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에서 이 검사의 신뢰도는 .63에서 .80까지 분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절차

참가자들의 과제 중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을 공격성 차원에서 평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참가자들이 받아야 할 설문

지는 평가해야 할 대상자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설문지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이들을 5-6명의 집단으로 무선적으로 분할하여 누가 누구를 평정할지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기초하여 각 참가자가 해야 할 질문지를 만들었다. 각 공격성 차원에 대해 평가해야 할 친구들의 이름을 제시하였으며 각 이름 옆에는 5점 척도를 제시하였다. 자료수집은 학기 말쯤 수업시간에 담임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참가자들에게 알려주었다. 또한, 그들의 평정이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각 개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주었다. 참가자들의 설문지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담임교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자료에 근거하여 어떻게 설문지를 작성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이 평정을 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결 과

먼저, 6개 공격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평가에 기초하여 공격성 지각과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동료거명에 근거해서 분류한 공격성 관련 하위집단(가해, 피해, 가해/피해, 비교)들간에 공격성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격성 지각의 여러 측면들이 대인관계성향과 갖는 관련성을 살펴볼 것이다.

공격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남녀비공학(남: 116명, 여: 108명)과 남녀공학(남: 101명, 여: 82명)의 중학생 407명은 집단별로 6개 공격성 차원에서 자기평가와 타인평가를 실시하였다. 공격성 차원은 각각 3개의 능동적 및 수동적 공격차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차원이 본 연구의 자료와 부합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표 1 공격성 수준에 있어서 학교유형과 성별에 따른 차이

| 변인 | 남녀비공학 | | 남녀공학 | | 평균 | 주효과 F검증 | |
|-------------------|-----------|-----------|-----------|-----------|------|---------|----------|
| | 남 | 여 | 남 | 여 | | 학교유형 | 성별 |
| 자기평가치 | | | | | | | |
| 신체적 폭력과 위협 | 2.14(.10) | 1.80(.10) | 2.08(.10) | 1.82(.11) | 1.98 | .04 | 8.58** |
| 반항과 규율위반 | 2.53(.09) | 2.43(.10) | 2.32(.10) | 2.44(.11) | 2.43 | .97 | .01 |
| 고함과 욕설 | 2.69(.10) | 2.57(.11) | 2.68(.10) | 2.52(.12) | 2.62 | .09 | 1.61 |
| 질투와 빠치기 | 2.69(.10) | 3.06(.11) | 2.45(.11) | 2.90(.12) | 2.76 | 3.09* | 13.39*** |
| 비방과 헛소문내기 | 1.91(.09) | 2.20(.09) | 1.90(.09) | 2.09(.10) | 2.01 | .48 | 6.49* |
| 정서적 불안정성 | 2.84(.10) | 2.95(.11) | 2.53(.11) | 2.87(.12) | 2.77 | 3.17* | 4.20* |
| 타인에 의한 평가치 | | | | | | | |
| 신체적 폭력과 위협 | 1.79(.06) | 1.68(.06) | 1.70(.06) | 1.47(.07) | 1.67 | 6.33* | 8.41** |
| 반항과 규율위반 | 1.99(.06) | 1.99(.07) | 1.96(.06) | 1.85(.07) | 1.95 | 1.75 | .67 |
| 고함과 욕설 | 2.11(.07) | 1.99(.07) | 2.10(.07) | 1.92(.08) | 2.04 | .28 | 4.22* |
| 질투와 빠치기 | 2.13(.06) | 2.51(.07) | 2.12(.06) | 2.24(.07) | 2.24 | 4.83* | 15.01*** |
| 비방과 헛소문내기 | 1.81(.06) | 1.91(.06) | 1.73(.06) | 1.89(.07) | 1.83 | .63 | 4.13* |
| 정서적 불안정성 | 2.14(.07) | 2.30(.07) | 2.06(.07) | 2.11(.08) | 2.15 | 3.67* | 2.25 |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준편차는 ()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평정은 5점 척도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정 차원의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 자기평가를 기초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요인이 검출되었는데, 첫 번째에는 능동적 공격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신체적 폭력과 위협, 반항과 규율위반 및 고함지르기와 욕설하기 차원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요인에는 수동적 공격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한 질투와 빠치기, 비방과 헛소문내기 및 정서적 불안정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공격성 유형에 따른 차원 선정이 적절함을 함축해 준다.

학교유형과 성별에 따라 6개의 공격성 차원에 대해서 자기평가와 타인에 의한 평가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모든 차원에서 자기평가가 타인에 의한 평가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각 차원 별로 $t = 6.37, 8.27, 10.74, 8.00, 2.98$, 그리고 $9.63, p < .05$). 결국,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타인들의 눈에 비친 모습보다도 자기자신을 더 공격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각 공격성 차원에서의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2(학교유형: 남녀비공학과 남녀공학) X 2(성별: 남과 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1에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유의도 검증에서 자기평가와 타인에 의한 평가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두 평가 유형에 따

른 결과는 매우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학교 유형에 따른 주효과를 살펴보면, 남녀공학이 남녀비공학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공격성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차이가 크지 않아 3개의 차원에서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거나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능동적 공격이 전반적으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에게 더 높아 보인다. “반항과 규율위반”은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신체적 폭력과 위협”은 남학생에게 더 높았으며, “고함과 욕설”도 남학생들에게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반면에, 수동적 공격은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러나, 모든 변인에서 학교와 성별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공격성 지각의 여러 측면들

이 절에서는 공격성 지각에 있어서 SRM에 근거한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 연구자들의 가설(가설 1과 가설2)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지각자 효과, 지각대상자 효과, 관계 효과: 집단구성원들간에 이루어진 공격성에 대한 평정치

표 2 공격성 지각에서의 상대적 변량분할

| 변인 | 지각자 효과 | 지각대상자 효과 | 관계 효과 |
|---------------|--------|----------|-------|
| 능동적 공격 | | | |
| 신체적 폭력과 위협 | .34* | .18* | .48 |
| 반항과 규율위반 | .40* | .19* | .42 |
| 고함과 욕설 | .35* | .22* | .43 |
| 전체 | .23* | .18* | .21* |
| 수동적 공격 | | | |
| 질투와 빠치기 | .34* | .11* | .55 |
| 비방과 헛소문내기 | .43* | .15* | .42 |
| 정서적 불안정성 | .35* | .15* | .50 |
| 전체 | .25* | .12* | .24* |

주. * $p < .05$

들이 갖는 변량을 SRM의 지각자 효과, 지각대상자 효과 및 관계 효과에 따른 변량으로 SOREMO (Kenny, 1993)를 이용하여 분할하였다. 각각의 상대적 변량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는데, 상대적 변량은 전체 변량 중에서 특정 효과에 따른 변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본 연구자들은 공격성 지각에 있어서 지각자 효과, 지각대상자 효과와 관계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가설 1). 표 2에서 보듯이, 지각자 변량은 .34에서 .43까지 분포하며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했다. 또한, 지각대상자에 따른 변량도 .11에서 .22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모든 차원에서 유의미했다. 그러나, 관계 효과는 그 효과를 측정상의 오류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어 유의도 검증을 할 수 없었다(자세한 내용은 Kenny, 1994, pp. 82-83; Malloy와 Albright, 1990을 볼 것).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공격성 유형별로 3개의 차원을 묶어서 능동적 공격과 수동적 공격에 대한 변량분할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능동적 공격의 경우 20% 전후의 3가지 효과가 있었으나, 수동적 공격에서는 20%를 상회하는 지각자 효과 및 관계 효과와는 달리 약 10% 정도의 지각대상자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예측한 것과 비

슷하다고 할 수 있다.

SRM에 근거한 여타의 대인지각적 측면들:

대인간 공격성 지각에 있어서 여러 지각적 특성들을 보여주는 상관계수(가설 2)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공격성 지각에서 어느 정도의 상호성과 가정된 상호성을 기대하였다. 상호성의 상관계수는 .05에서 .19까지 분포하며 그 평균은 .11로서 상호성은 존재했지만 매우 미약했으며, 특히 능동적 공격에서의 상호성이 더욱 약했다. 그러나, 가정된 상호성은 상호성보다는 더 강해 모든 공격성 차원에서 .26부터 .39까지의 중간 수준의 상관성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대한 것처럼 특질차원과는 달리 공격성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상호성과 가정된 상호성이 있음을 지적해 준다. 또한, 예측한 것처럼, 초지각의 정확성은 .08에서 .16까지 분포하여 있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초지각의 정확성이 존재함을 함축해 주지만 .11이라는 평균으로 보아 정확성 수준은 매우 낮아 보인다.

표 3에서 가정된 유사성은 .03에서 .21까지 분포하며 그 평균은 .13이다. 그러나, 공격성 차원에 따라 상관크기가 차이가 심해 안정된 경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자아-동료간 일치는 .08에

표 3 대인간 공격성 지각에 SRM에 근거한 여러 측면들

| 변인 | 상호성 | 가정된 상호성 | 초지각의 정확성 | 가정된 유사성 | 자아-동료 일치 |
|------------|------|---------|----------|---------|----------|
| 신체적 폭력과 위협 | .05 | .26* | .08* | .20* | .40* |
| 반항과 규율위반 | .07* | .31* | .09* | .12 | .33* |
| 고함과 욕설 | .11 | .32* | .10* | .03 | .25* |
| 질투와 빼치기 | .19* | .28* | .16* | .05 | .25* |
| 비방과 헛소문내기 | .13* | .39* | .11* | .21* | .13 |
| 정서적 불안정성 | .12* | .30* | .10* | .15* | .08 |

주. * $p < .05$.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상관계수가 유의미한 반면, 이보다 큰 상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는 유의도 검증에서 각 집단의 변량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Warner et al., (1979)나 David A Kenny의 비독립적인 자료(nonindependency)의 분석에 관한 다양한 논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4 공격성 수준에 있어서 4개 하위 집단들간의 차이

| | 가해 | 피해 | 가해/피해 | 비교 | 평균 | F검증 |
|-------------------|--------------------------|--------------------------|-------------------------|-------------------------|------|----------|
| 자기평가치 | | | | | | |
| 신체적 폭력과 위협 | 2.26(1.06) ^a | 1.59(.89) ^b | 2.25(1.10) ^a | 1.76(.93) ^b | 1.98 | 10.77*** |
| 반항과 규율위반 | 2.54(.96) ^a | 2.14(.92) ^b | 2.77(1.13) ^a | 2.26(.93) ^b | 2.43 | 7.26*** |
| 고함과 욕설 | 2.88(1.03) ^a | 2.21(1.02) ^b | 2.98(1.16) ^a | 2.39(.87) ^b | 2.62 | 12.40*** |
| 질투와 빠치기 | 2.83(1.19) | 2.53(1.15) | 2.92(1.15) | 2.70(1.07) | 2.76 | 1.79 |
| 비방과 헛소문내기 | 2.04(.93) ^{ab} | 1.83(1.02) ^a | 2.23(1.02) ^b | 1.96(.80) ^a | 2.01 | 2.72* |
| 정서적 불안정성 | 3.00(1.07) ^a | 2.73(1.30) ^{ab} | 2.94(1.13) ^a | 2.53(.95) ^b | 2.77 | 4.51** |
| 타인에 의한 평가치 | | | | | | |
| 신체적 폭력과 위협 | 1.92(.73) ^a | 1.43(.36) ^b | 1.97(.63) ^a | 1.40(.37) ^b | 1.67 | 31.46*** |
| 반항과 규율위반 | 2.06(.67) ^a | 1.78(.49) ^b | 2.37(.73) ^c | 1.68(.53) ^b | 1.95 | 25.54*** |
| 고함과 욕설 | 2.29(.78) ^a | 1.73(.48) ^b | 2.46(.73) ^a | 1.73(.54) ^b | 2.04 | 33.37*** |
| 질투와 빠치기 | 2.31(.56) ^a | 2.19(.62) ^{ac} | 2.56(.79) ^b | 2.01(.61) ^c | 2.24 | 13.89*** |
| 비방과 헛소문내기 | 2.00(.65) ^a | 1.61(.46) ^b | 2.12(.72) ^a | 1.61(.49) ^b | 1.83 | 19.50*** |
| 정서적 불안정성 | 2.34(.70) ^a | 1.94(.60) ^a | 2.50(.75) ^a | 1.88(.57) ^a | 2.15 | 21.52*** |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준편차는 ()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평정은 5점 척도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정 차원의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공격성 차원에서 같은 점자를 가지고 있는 평균들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서 .40까지 분포하며 전체적으로 .24의 상관이 있었다. 또한, 상관의 크기가 공격성 차원에 따라 변화가 심하고 특히 수동적 공격의 두 차원에서는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예측한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공격성 차원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공격성 지각에서의 개인차

본 연구에서는 동료거명 결과에 기초하여 총 407명을 가해(112명), 피해(70명), 가해/피해(87명), 그리고 비교(138명)집단으로 구분하였다.⁴

먼저, 동료거명에 근거한 이러한 구분이 신뢰로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6개의 공격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자기평가와 타인에 의한 평가가 집단간에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각 차원별로 자기평가와 타인에 의한 평가를 종속변인 그리고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평가방식에 상관 없이 모든 공격성 차원에서 가해와 가해/피해 집단이 피해와 비교집단보다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

4. 동료거명으로 집단을 분류하는 것은 본 연구의 많은 종속측정치가 자기평가에 근거하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집단분류와 종속변인의 측정 모두가 자기평가에 의존할 때, 자기평가의 편향이 연구결과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동료거명으로 얻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큰 이유는 분류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느슨한 기준에 따라 나온 효과는 엄격한 기준을 따를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

는 상당히 엄격(conservative)하다 하겠다. 또한, 몇몇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일부의 참가자들이 어떠한 집단에도 할당되지 않을 경우, 이들이 공격성 관련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 혹은 이들에 대한 분류가 불가능한지 애매하다. 또한, 이러한 분류에 의해서 얻은 결과가 어떠한 집단에도 속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가능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참가자들을 4개의 집단 중 한 집단에 할당하였다.

다. 특히, 타인에 의한 평가에서 집단간 차이가 더 분명한데, 이는 동료거명과 평가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동료거명에 의한 집단간 분류가 신뢰로움을 함축한다.

이러한 동료거명에 근거해서 분류한 집단들이 SRM에 근거한 공격성 지각에서의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본

연구의 가설 3과 관련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치가 가해나 피해집단에서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비교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지각자로서의 평가치가 낮은 경향성이 있다.

표 5 SRM에 따른 여러 대인지각 측면에서 공격성 수준에 따른 4개의 집단간 차이

| | 가해 | 피해 | 가해/피해 | 비교 | F검증 |
|-------------------|-------------------------|--------------------------|-------------------------|-------------------------|---------------------|
| 타인에 대한 평가치 | | | | | |
| 신체적 폭력과 위협 | 1.64(.67) ^a | 1.70(.72) ^a | 1.93(.75) ^b | 1.54(.64) ^a | 5.76 ^{***} |
| 반항과 규율위반 | 1.90(.76) | 2.09(.81) | 2.09(.89) | 1.85(.70) | 2.69 [*] |
| 고함과 욕설 | 2.02(.84) | 2.06(.79) | 2.18(.83) | 1.98(.75) | 1.22 |
| 질투와 빼치기 | 2.26(.85) | 2.23(.88) | 2.37(.80) | 2.17(.75) | 1.12 |
| 비방과 헛소문내기 | 1.86(.81) ^{ab} | 1.94(.85) ^a | 1.96(.85) ^a | 1.68(.68) ^b | 2.89 [*] |
| 정서적 불안정성 | 2.18(.86) | 2.11(.85) | 2.28(.91) | 2.07(.74) | 1.13 |
| 상호성 | | | | | |
| 신체적 폭력과 위협 | .00(.75) | -.01(.58) | .04(.81) | .06(.63) | .21 |
| 반항과 규율위반 | .04(.58) | -.06(.57) | .13(.63) | .06(.63) | 1.44 |
| 고함과 욕설 | .08(.96) | -.05(1.21) | .10(.90) | -.03(.81) | .65 |
| 질투와 빼치기 | .23(1.38) ^a | -.20(1.27) ^b | .46(1.25) ^a | .15(1.24) ^{ab} | 3.81 ^{**} |
| 비방과 헛소문내기 | .21(.86) ^a | -.20(.83) ^b | .01(.74) ^{ab} | .03(.64) ^a | 4.15 ^{**} |
| 정서적 불안정성 | .11(1.00) | .21(2.37) | .39(2.08) | .29(2.23) | .37 |
| 가정된 상호성 | | | | | |
| 신체적 폭력과 위협 | -.10(.53) ^a | -.11(.89) ^{ab} | -.31(.84) ^b | -.05(.61) ^a | 2.65 [*] |
| 반항과 규율위반 | .10(.55) ^a | .02(.62) ^a | .27(.62) ^b | .01(.50) ^a | 4.29 ^{**} |
| 고함과 욕설 | -.20(.85) ^{ab} | -.19(.96) ^{ab} | -.33(.80) ^a | -.03(.68) ^b | 2.62 [*] |
| 질투와 빼치기 | .18(.76) | -.05(.75) | .10(.63) | .03(.56) | 1.90 |
| 비방과 헛소문내기 | .22(.68) ^{ac} | -.03(.74) ^b | .25(.58) ^a | .08(.54) ^{bc} | 3.69 [*] |
| 정서적 불안정성 | .18(.54) | -.01(.89) | .16(.73) | .03(.68) | 1.78 |
| 초지각의 정확성 | | | | | |
| 신체적 폭력과 위협 | -.08(.54) ^{ab} | -.04(.53) ^{ab} | -.20(.66) ^a | .02(.46) ^b | 2.61 [*] |
| 반항과 규율위반 | .01(.43) | -.04(.37) | .10(.41) | .01(.31) | 1.81 |
| 고함과 욕설 | -.05(.73) ^{ab} | -.05(1.06) ^{ab} | -.22(.63) ^a | .09(.67) ^b | 2.92 [*] |
| 질투와 빼치기 | .10(.67) ^a | -.15(.72) ^b | -.01(.58) ^{ab} | .03(.48) ^a | 2.66 [*] |
| 비방과 헛소문내기 | .07(.59) | -.11(.55) | .04(.49) | .04(.41) | 2.01 |
| 정서적 불안정성 | .05(.50) | -.16(1.04) | .01(.75) | -.01(.72) | 1.26 |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타인에 대한 평가치는 5점 척도 상에서 각 지각자가 다른 사람을 평가한 값들의 평균이다. 그 외의 숫자들은 공변량인데, 가령 둘 간에 상호성은 A와 B의 서로에 대한 평가치들간의 공변량이다. 각 공격성 차원에서 같은 첨자를 가지고 있는 평가치들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매우 작아 2개의 차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경우, 피해 및 가해/피해 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지각자로서의 평가치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의 가설을 크게 지지해 준다고 보기 어렵다.

연구자들은 각 공격성 차원에서 극단적인 위치에 놓인 상대방을 평가할 때 지각자간 일치가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먼저, 동료-동료간 일치의 지표인 지각대상자에 따른 변량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다른 집단에 속한 아동보다 가해아동을 평가하는데 동료-동료간 일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러한 차이는 매우 작아 “신체적 폭력과 위협” 차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F_{3, 403} = 3.87, p < .01$). 이와는 별도로, 극단적으로 공격적이거나 비공격적으로 보이는 상대방을 평가할 때, 동료-동료간 일치가 증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각 지각대상자에 대한 다수의 평가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측정하였으며 각각을 지각대상자의 공격성 수준 및 동료-동료간 일치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런 다음, 공격성 수준과 동료-동료간 일치와의 2차적 곡선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6개의 공격성 차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큰 부정 상관이 나타났다(각각 $r = -.87, -.73, -.76, -.56, -.81$, 그리고 $-.70, p < .001$). 이 때, 평가치들간의 일치가 클수록 표준편차는 작아지기 때문에, 이 결과는 예측한대로 지각자들이 극단적인 사람을 평가할 때 그들간에 일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⁵ 우리는 공

격성 지각에 대한 상호성과 가정된 상호성이 피해집단에서 가장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상호성의 경우 피해집단만이 부적인 공변량, 즉 두 사람간의 행동이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상보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함과 욕설”과 “비방과 헛소문내기”에서만 피해집단이 가해 및 가해/피해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상호성을 보였다. 상호성보다는 가정된 상호성의 경우에 집단간 차이가 더 잘 나타났다. 가정된 상호성에서도 피해집단은 상보적 특성을 보였지만, 이런 경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연구자들의 예측과 동일한 방향의 경향성을 보여주었지만, 그 경향성이 강력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자들은 피해나 가해 집단 모두에서 초지각의 정확성이 가장 낮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초지각의 정확성은 표 5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는 피해집단에서 가장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3개의 차원 중 두 차원에서는 가해/피해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초지각의 정확성이 낮았으며, 한 개의 차원에서는 피해집단이 가해와 비교집단보다 정확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예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공격성 지각과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SRM에 근거하여 공격성에 대한 여러 지각적 측면이 대인관계성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가설 4와 관련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6개의 공격성 차원 각각에 대하여 SRM에 근거한 모든 지각적 측면

5 특정 지각대상자에 대한 평가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수학적으로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즉, 평균이 극단적으로 작거나 클수록 표준편차는 작아진다. 따라서, 여기서 얻은 상관의 크기가 과대추정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Jung(1998)은 컴퓨터 모사실험을 통해 공격성 수준의 극단성이 동료-동료간 일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평균과 표준편차의 수학적 관계가 미치는 효과는 실제 미미했다. 이 실험

에 따르면, 이러한 오류는 상관으로 .10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은 상관이 측정에 따른 오류(artifact)때문으로 보기 어렵다.

표 6 대인관계 성향에 대한 공격성관련 지각적 유형의 회귀분석

| 대인관계성향 대인지각유형 | 우월성 | 우호성 | 과시성 | 지배성 | 도취성 | 사교성 |
|------------------|-------|-----|--------|-------|-------|--------|
| 타인에 대한 평가치 | .21** | .11 | .12 | .22** | .23** | .14 |
| 자기평가치 | .22** | .14 | .26*** | .20* | .13 | .14 |
| 타인에 의한 평가치 | .15 | .07 | .23*** | .18* | .15 | .27*** |
| 전체 | .32** | .18 | .33*** | .31** | .30** | .32*** |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숫자는 중다상관(R).

각각이 대인관계성향의 각 하위차원과 갖는 단순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측면에 대한 평가치들, 즉 타인에 대한 평가치, 자기평가치 및 타인에 의한 평가치만이 대인관계성향과 전반적으로 의미있는 상관이 있었다. 이 외에 가정된 상호성은 “우호성”과 그리고 초지각의 정확성은 “과시성”과 각각 3 개의 공격성 차원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상관의 크기도 작고(평균적으로 .10) 그 방향도 일정하지 않았으며 다른 대인관계성향 차원과는 큰 상관이 없어서 이 두 측면도 이후의 분석에서 제외했다.

대인관계성향의 각 하위척도에 대해서 6개 공격성 차원에 해당되는 타인에 대한 평가치를 6개의 예측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평가치 및 타인에 의한 평가치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분석에 따른 중다상관이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타인에 대한 평가치는 “우월성”, “지배성”, “도취성”과 관련성이 크고, 자기평가치는 “우월성”, “과시성” 및 “지배성”와 관련성이 컸다. 타인에 의한 평가치는 “과시성”, “지배성” 및 “사교성”과 관련이 컸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성향의 각 하위차원에 대해서 6개 공격성 차원에 대한 3가지 유형의 평가치 전체, 즉 18개의 예측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6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공격성 지각에 있어서의 SRM에 근거한 이 3가지 측면이 대인관계성향의 “우호성”을 제외한 모든 차원과 평균 .30 정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중다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들의 예측을 지지해 준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공격성에 대한 자아평가가 타인에 의한 평가보다 높았다. 남학생은 능동적 공격수준이, 여학생은 수동적 공격수준이 높았으며, 남녀공학이 남녀비공학에 비해 미약하지만 덜 공격적일 가능성이 있었다. 공격성에 대한 지각도 기존의 특질차원에서의 대인지각과 상당히 유사했지만, 이 둘 간에 무시할 수 없는 차이점들도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공격성 지각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에 대한 지각적 특성이 대인관계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공격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 평가자(자기 대 타인) 효과, 성별 및 학교유형별 효과 등을 보고했다. 먼저, 공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참가자들은 남들이 보는 것보다도 자신을 더 공격적이라고 지각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자의식이 일시적으로 고양되는 경향을 보인다(장휘숙, 1997). 즉,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외현적 모습과 내면적

특성에 대해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일시적 상태에 놓인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특성을 과장해서 판단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자신의 공격성을 사회적인 압력이나 규범 때문에 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격수준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이들의 공격성은 매우 낮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질차원을 이용한 연구에서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정태연, 1999).

본 연구의 결과는 남녀공학 학생들이 성별로 분리된 비공학 학생들보다 덜 공격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도 청소년기의 자의식 발달(Blos, 1962; Elkind, 1967; Muuss, 1988)과 이성에 대해 민감한 시기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시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이성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는 이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공격적 행동을 억제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공학 대 비공학을 비교한 연구(이기숙, 1988; 정미란, 1983; 최형규, 1995; Arnot, 1983; Lasser, 1987; Measor & Sikes, 1992)를 살펴보면, 남녀공학 형태의 학교 환경이 남녀 학생들에게 수업태도와 이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 성 정체감 등을 포함해서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공격적인 행동 유형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이를 발견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남학생은 주로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 그리고 여학생은 간접적인 공격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 1990). 이러한 차이는 일차적으로 남녀의 사회화 차이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두 유형의 공격과 관련해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 행동 뿐 아니라 여학생들의 간접적 공격형태로 나타나는 관계내 공격(relational aggression)의 심리적 위험이 논의되고 있다(Crick, 1996; Crick & Grotpeter, 1995). 이런 유형의 행동은 대인관계 형성과정에

서 발생하는 공격 행동으로 흔히 서로 편먹고 따돌리기,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조종을 하기, 언어적 폭력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공격 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외로움이나 우울, 그리고 소외 등의 문제로 나타나 더 심각한 적응적 어려움을 남기기도 한다(Block, 1983; Crick & Grotpeter, 1995).

공격성 평가에서의 지각자 효과와 지각대상자 효과 공격성 평가에서의 지각자 효과와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Dodge & Tomlin, 1987; Dodge et al., 1990), 공격적 아동의 눈에는 타인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예측을 전반적으로 지지해 주지 못했다. 가능한 원인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공격적 아동의 지각적 편향을 검증할 때 가상적인 상황을 이용하였는데, 가상적인 대상을 지각하는 것은 실제 대상을 지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둘째, 공격적인 아동 중에서도 타인지각과 관련해서 하위유형이 있을 수 있다. 본 자료를 살펴본 결과 비교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의 아동들은 다른 아동에 비해 타인의 공격성을 지각함에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가해와 가해/피해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매우 강했다. 이는 공격적인 아동 중에서도 타인지각에 있어서 하위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에 대한 평가는 지각자 효과, 지각대상자 효과 및 관계 효과에 의해 결정되었다. 특히, 지각자 효과와 관계효과의 합이 동료-동료간 일치율을 나타내는 지각대상자 효과보다 크다는 사실은 동일한 대상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하나의 방법이 교사, 부모나 친구 등 1-2명의 평가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타인을 통해 공격성을 측정할 때의 기본가정은 평가자들간에 일치

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은 동료-동료간 일치는 다른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크게 높지 않았다. 또한, 소수의 평가자를 이용할 때 평가치가 평가대상자의 공격성에 근거했는지, 혹은 평가자의 지각자 효과나 둘 간의 관계효과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다(Kenny, 1994).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측정된 아동들간의 차이가 실제 그들의 공격성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장하기 힘들다.

지각대상자 효과로 측정되는 동료-동료간 일치는 공격성 차원에서 극단적인 위치에 놓이는 상대방을 평가할 경우에 더 높았다. 이는 공격성에서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개인의 행동은 더 일관적이며 공격적 행동의 전형(prototypes)에 더 근접하기 때문에, 지각자들이 서로 비슷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Cantor & Mischel, 1979). 이러한 결과가 평가적인 측면에서 함축하는 바는 중간 수준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객관적으로 변별해 내는 것이 특히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대상의 공격성 수준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평가자간 일치를 증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이용하며 또한, 다수의 평가자를 이용함으로써 지각자 효과나 관계 효과가 평가자들간에 상쇄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처럼, 가능한 여러 종류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측정치들간의 일관성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가령, 동료거명을 통해 구분한 공격성 하위집단들이 자아평가나 타인에 의한 평가에서도 동일한 차이점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측정치는 어느 정도 신뢰로와 보인다.

공격성 지각의 여타 측면과 대인관계성향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지각에 있어서 상호성과 가정된 상호성은 어느 정도 존재했으며, 특히 가정된 상호성이 더 강했다. 또한, 이 두 측면에서

피해관련 집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성이 있었지만 집단간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집단간 차이가 작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상호성이나 가정된 상호성이 크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아동들이 가지는 공격성에 대한 상보적 지각경향성은 부적응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상호성에서의 낮은 상관은 대인간 공격성이 둘 간의 관계적인 측면에 의해서 거의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사실과 달리 상대방의 공격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초지각의 정확성과 관련해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초지각의 정확성이 존재하지만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지각의 정확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간에 강한 차이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관련 아동들은 다른 아동에 비해 초지각의 정확성이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가해아동의 초지각은 적어도 정상아동 만큼 정확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가해아동이나 피해아동의 정보처리상의 결함을 보고한 연구들과는 사뭇 다르다(Dodge et al., 1990; Dodge, & Feldman, 1990; Dodge & Sornberg, 1987).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비록 본 연구가 직접적 대인관계 맥락 속에서 공격성에 대한 지각적 측면을 연구하였지만, 평가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공격성향이나 행동특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인관계 속에서의 초지각의 정확성의 문제는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이 예측한 것처럼, 공격성 지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정된 유사성과 자아-동료간 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질 차원에서보다는 공격성 차원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더 약했다. 특히, 공격성의 평가와 관련해서 높지 않은 자아-동료간 일치는 문제가 될 수 있

다. 자기평가는 공격성 측정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법이다(Kenny, 1994). 이 때, 자아-동료간 일치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공격성 평가의 평가자간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평가의 타당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격성에 있어서 자기평가가 갖는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인관계성향과 관련해서, 공격성에 대한 자기 지각, 타인에 대한 지각, 그리고 타인에 의한 지각이 대인관계성향과 상당한 정도의 중다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자아에 대한 개념이 대인관계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대인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발달될 뿐만 아니라(Purky, 1970), 반대로 자신에 대한 평가가 타인과의 대인관계 행동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enny, 1994). 또한, 본 연구에서처럼 내가 타인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들과의 대인관계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상황의 해석과 평가가 대인관계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한 개인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치가 그 개인의 공격성을 나타내주는 한 지표라고 볼 때, 공격성과 대인관계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결국, 한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지각적 특성이 동료에 대한 그 아동의 행동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금주와 김하연(1991). 청소년의 반사회성과 사회정보처리과정간의 관계(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45-156.
- 김인규(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청소년대화의 광장.
- 안범희(1985). 대인관계 적절성과 대인관계 성향 검사의 타당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리라(1999).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사회정보처리 특성: 반응적 공격성과 비반응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과 곽금주(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1). 형사정책연구, 2(2), 53-83.
- 이기숙(1988). 남녀공학, 비공학 학생간의 생활의식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란(1983). 남녀공학이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1999). 친숙성 수준에 따른 한국대학생의 대인지각. 미출판 자료. 연세대학교.
- 최형규(1995). 혼성학급: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이야 한다. 새교육, 1, 18-20.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lbright, L., Kenny, D. A., & Malloy, T. E. (1988). Consensus in personality judgment at zero acquain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387-395.
- Arnot, M.(1983). A cloud over co-education: An analysis of the forms of transmission of class and gender relations. In S. Walker & Len B.(ed.), *Gender, class and education*, London: The Falmer Press.
- Bickett, L. R., Milich, R., & Brown, R. T. (1996). Attributional styles of aggressive boys and their moth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4), 457-472.
-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o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Blos, P. (1962). *On Adolescence*. NY : Free Press.
- Buss, A. H. (1961). *The psychology of*

- aggression*. New York: Wiley.
- Callaghan S., & Joseph, S. (1995). Self-concept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161 - 163.
- Cantor, N., & Mischel, W. (1979). Prototype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2, pp. 3-52). New York: Academic Press.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abbs, J. M. Jr., & Ruback, R. B. (1987). Dimensions of group process: Amount and structure of vocal interac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0, pp. 123-169).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170.
- Dodge, K. A. (198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variabl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altruism in children. In C. Zahn-Waxler, E. M. Cumming, & R. Iannotti (Eds.), *Altruism and aggression-biological and social origi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Dodge, K. A., & Feldman, E. (1990). Issues in social cognition and sociometric status. In Steven R. Asher & John D. Coie (e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Dodge, K. A., & Somberg, D. R. (1987).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re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s to the self. *Child Development*, 58, 213-224.
- Dodge, K. A., & Tomlin, A. M. (1987). Utilization of self-schemans as a mechanism of interpersonal bias in aggressive children. *Social Cognition*, 5, 280-300.
- Dodge, K. A., Price, J. M., Barchorowski, J., & Newman, J. P. (1990).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in severely aggressive adolescenc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4), 385-392.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 Psychology*, 34, 299-309.
- Elkind, D. (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8, 1025-1034.
- Funder, D. C. (1980). On seeing ourselves as others see us: Self-other agreement and discrepancy i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Personality*, 48, 473-493.
- Funder, D. C., & Colvin, C. R. (1988). Friends and strangers: Acquaintanceship, agreement, and the accuracy of personality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49-158.
- Green, R. G. (1990). *Human Aggression*, CA:Brooks/ Cole Publishing Co.
- Hallmark, B. W., & Kenny, D. A. (1989). *The effect of rating a person at a time or a trait at a time on the variance components of the Social Relations*

- Model*.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onnecticut.
- Haselager, G. J. T., & Van Lieshout, C. F. M. (1992). *Social and Affective Adjustment of Self and Peer Reported Victims and Bullies*. Paper presented at the 5th European Conference on Developmental Psychology, Seville.
- John, O. P., & Robins, R. W. (1993). Determinants of interjudge agreement on personality traits: The big five domains, observability, evaluativeness, and the unique perspective of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61*, 523-551.
- Jung, T. (1998). *A new look at the moderator variable approach to agreement: The role of target stand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Kashy, D. A. (1988). *Intergroup processes: A social relations perspectiv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onnecticut.
- Kenny, D. A. (1991). A general model of consensus and accuracy in interpersonal perception. *Psychological Review, 98*, 155-163.
- Kenny, D. A. (1993). *SOREMO: A FORTAN program for the analysis of round-robin data structure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onnecticut.
- Kenny, D. A. (1994). *Interpersonal perception: A social relations model*. New York: Guilford Press.
- Kenny, D. A., & La Voie, L. (1984). The Social Relations Model.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8, pp. 142-182). Orlando, FL: Academic Press.
- Kenny, D. A., & Burnstein, N. (1982). [interactions between opposite-sex strangers.] Unpublished raw data, University of Connecticut.
- Kenny, D. A., & Depaulo, B. M. (1993). Do people know how others view them?: An empirical and theoretical account. *Psychological Bulletin, 114*, 145-161.
- Kenny, D. A., & Kashy, D. A. (1994). Enhanced coorientation in their perception of friends: A social relations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24-1033.
- Kenny, D. A., & Malloy, T. E. (1988). Partner effects i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2*, 34-57.
- Kenny, D. A., Albright, L., Malloy, T. E., & Kashy, D. A. (1994). Consensus in interpersonal perception: Acquaintance and the Big Five. *Psychological Bulletin, 116*, 245-258.
- Kenny, D. A., Horner, C., Kashy, D. A., & Chu, L. (1992). Consensus at zero acquaintance: Replication, behavioral cues, and st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88-97.
- Lasser, C. (1987). *Educating men and women together: Coeducation in a changing world*. Urbana,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cCrae, R. R., & Costa, P. T., Jr. (1989). Different points of view: Self-reports and ratings in the assessment of personality. In J. P. Forgas & M. J. Innes (Eds.), *Recent advances in social psychology* (pp. 429-439). Amsterdam: North-Holland.
- Malloy, T. E. (1987). *A longitudinal study of interpersonal perception*. Unpublished raw data, Rhode Island College, Providence.
- Malloy, T. E., & Albright, L. (1990). Interpersonal perception in a social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58, 419-428.
- Measor, L., & Sikes, P. J. (1992). *Gender and schools*. New York: Cassell.
- Montgomery, B. (1984). Individual differences and relational interdependences in social interac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1, 33-60.
- Muuss, R. E. (1988). *Theories of Adolescence (5th ed.)*. NY : Random House.
- Neary, A., & Joseph, S. (1994).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and depress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183-186.
- Oliver, P. V. (1988). *Effects of need for social approval on first interaction among members of the opposite sex*.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kwell.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Development Psychology*, 16, 644-60.
- Park, B., & Flink, C. (1989). A social relations analysis of agreement in liking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06-518.
- Park, B., & Judd, C. M. (1989). Agreement on initial impressions: Differences due to perceivers, trait dimensions, and target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493-505.
- Pulkinen, L., & Tremblay, R. E. (1992). Pattern of boys' social adjustment in two cultures and at different ages :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5, 527-553.
- Purky, W. W. (1970).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Reno, R. R., & Kenny, D. A. (1992). Effects of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on self-disclosure among unacquainted individuals: An application of the Social Relations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60, 79-94.
- Schwartz, D., Dodge, K. A., & Coie, J. D. (1993).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elopment*, 64, 1755-1772.
- Swan, W. B. Jr., (1984). Quest for accuracy in person perception: A matter of pragmatics. *Psychological Review*, 91, 457-477.
- Warner, R., Kenny, D. A., & Stoto, M. (1979). A new round robin analysis of variance for social interaction dat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742-1757.

An Interpersonal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Aggression

Taeyun Jung · Eun Jeong Kim · Inkyung Kim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Behavior

Using SRM(Kenny & La Voie, 1984), this study examined a variety of aspects of perception of aggression, compared four subgroups (bully, victim, bully/victim, comparison) in perceptual features of aggression, and explored a relationship between perceptual features of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pensity. There were 407 participants of 7th grade (male: 116, female: 108 at coeducational schools, male: 101, female: 82 at unimixed schools). Apart from self ratings, members of each of 74 groups of 5-6 rated each other on the 6 aggression dimension. They also nominated victims and bullies among their classmates up to six each and rated themselves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pensity scal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perceiver, target, and relationship effect on the perception of aggression. Small reciprocity, assumed reciprocity and meta-accuracy were found at the dyadic level. There were some levels of assumed similarity and self-other agreeme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emerged in some perceptual aspects of aggression. Finally, there were a relationship between perceptual features of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pensity.